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 원 진**

- I. 서론
- II.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 연구
- III.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기자 연구
- IV.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환웅이 강림한 태백산을 지금의 묘향산으로 보고 단군전설은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승려가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불교 경전의 牛頭施檀에서 檀木이란 명칭이 나왔으며 단군전설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수왕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三國遺事』에서 단군은 ‘檀君’이 아니라 ‘壇君’이라 기록했으며 ‘우두’라는 명칭은 이미 불교 전래 이전부터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三國遺事』의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라토리는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서 기자조선설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燕나라 사람의 이주에서 비롯된 것처럼 간략히 언급할 뿐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시라

* 이 논문은 흥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대표 논저 : 「예맥·조선과 서주·춘추 제와의 교류」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고조선과 燕나라의 전쟁과 요동」 『선사와 고대』 62, 2020 ; 「위만조선-漢나라의 전쟁 양상」 『군사』 118, 2021 ; 「고대 진번의 변천 연구」 『선사와 고대』 66, 2021 ; 「최근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연구 동향 검토」 『한국사학보』 85, 2021.

토리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된 것을 부정한 것은 당시 우리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라토리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왕·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따온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가 『滿洲歷史地理』에서 한사군부터 역사지리를 다룬 것은 사실상 고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와 독자적인 기원을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일본관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朝鮮半島史』, 『朝鮮史』 등은 고조선의 역사와 기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한사군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글자의 유사성만으로 고조선 왕들의 이름을 『易經』에서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三國志』에서 고조선의 왕을 기자의 후손으로 기록한 것은 후대의 윤색이라도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한 시라토리의 연구는 근대 일본학자들의 우리 역사 왜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주제어 : 고조선, 단군, 기자, 단군조선, 기자조선, 시라토리 구라키치

I. 서론

조선시대에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삼조선 중 전조선의 시조인 단군과 후조선의 시조인 기자가 동시에 주목되었다. 성리학을 국교를 채택한 조선은 시대에 따라 기자가 더 강조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단군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의 기원을 말해주는 시조로, 기자는 중국에 뒤지지 않는 문화 국가임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¹⁾

그러나 근대시기가 되어 일본관학자들²⁾이 한국에 대한 침략을 위해

1) 김문식, 「우리 속의 중화 사상」 『오늘의 동양사상』 11, 2004, 125~128쪽.
2) 본고에서는 ‘일본관학자’라는 용어를 시라토리로 대표되는 메이지정부의 국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한 학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한정지어 사용하였다.

조선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그 독자성과 유구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초의 개국시조인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며 조선의 역사를 서술하게 된다.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³⁾는 단군이 당요 시대에 평양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우고 이후 1048년이 지나 상 무정 8년에 이르러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대략 일본 기원전 5,6백년 경인 상 말기 북부 평안도지역에 이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자가 중국인 5천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피난하여 평양에 도읍했다고 이해했다. 즉 그는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지만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이다. 요시다 도고(吉田東伍)⁴⁾는 조선의 古史는 전혀 없으며 중국 사서에 기자조선에 대해 홍망의 두 기사뿐이며 그 간의 연혁은 탕진하여 알 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단군에 대해서는 夫餘種의 남하가 전하던 것이 후세에 이르러 신으로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를 조선 역사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 나카 미치요(那珂通世)⁵⁾는 조선에 대한 중국 문헌의 기록은 箕子 보다 이전의 것이 없으며 기자조선의 성쇠는 『魏略』을 통해 처음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단군전설은 중국 사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모두 조선인이 만든 것으로 불교 전래 이후 僧徒의 날조로 생긴 것으로 『東國通鑑』 외기의 기록은 승도의 망언을 역사상의 사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檀君考」(1894)를 통해 단군전설은 불교전래 이후 만들어진 승려의 허구라 보았고 이어서 「기자는 조선의 시조가 아니다(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1910)에서 기자동래나 조선의 이름

3) 林泰輔, 『朝鮮史』 卷1, 吉川半七, 1892(편무진·김현옥·이태훈 역, 『조선사』(번역·해제), 인문사, 2013, 61~62쪽).

4)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93~95쪽.

5) 那珂通世, 「朝鮮古史考-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1894, 37~58쪽.

이 『尙書』, 『書經』, 『左傳』에 나오지 않고 한대가 되서야 『史記』와 『尙書大全』에 나오는 것은 후대에 한반도로 이주한 중국인들이 『易經』을 이용하여 기자의 후손을 자칭한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그는 단군과 기자가 모두 조선의 시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시라토리의 연구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후대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시라토리의 연구를 확장하여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연구를 발표했으며⁷⁾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있었다.⁸⁾ 시라토리는 단군과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이후 일본관학자들의 한국사 연구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라토리의 연구 이후 일본학계는 단군만이 아니라 고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와 기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게 된다.

그동안 시라토리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의 단군 연구에 대해 근대시기 최남선의 비판이 있었으며⁹⁾ 최근에는 주로 만선사 검토의 일환으로 연구¹⁰⁾되었다.¹¹⁾ 그러나 시라토리의 고조선사와 기원 문제 연구에 대해 구

- 6) 최남선은 나카와 시라토리의 견해에 대해 단군을 부정하여 기자를 조선이 개국자라 하더니 그나마 시라토리는 기자마저 부정하여 위만을 조선의 발견자라라고 한다며 비판하였다(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2003, 130~131쪽).
- 7) 今西龍,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卷 10·11號, 1922 ; 「檀君考」 『靑邱說叢』 卷1, 1929(『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1~173쪽).
- 8)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한편 중국학계에서는 기자조선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이마니시 류의 기자 연구를 비판한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李健才, 「評〈箕子朝鮮傳說考〉」 『東北史地考略』 第三集, 吉林文史出版社, 2001, 1~16쪽).
- 9) 최남선, 『六堂 崔南善 全集』 2(韓國史2 檀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1973 ; 최남선(전성근·허용호 역),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 10) 박찬홍, 「白鳥庫吉와『滿鮮史學』의 성립」 『東北亞歷史論叢』 26, 2009 ; 이준성, 「만주역사지리」의 한사군 연구와 "만선사"의 성격 『人文科學』 54, 2014 ;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체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라토리의 단군·기자 연구를 중심으로 그의 고조선 기원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 연구

단군에 대한 전승은 『三國遺事』, 『帝王韻紀』, 『應製詩』 등 다양한 유형이 전하지만 이중에서도 『三國遺事』 유형이 가장 오래된 유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三國遺事』 유형에는 다른 유형에는 없는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기는 獸祖神話 요소가 보인다는 점에서 동물의 비중이 줄어든 다른 한국 건국신화보다 더욱 오랜 관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단군 전승이 고대국가들의 건국신화 중 가장 고졸한 면을 지니는 것은 고조선이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 국가였다는 사실과 연관되며 이 전승이 청동기시대인 고조선 당대의 산물임을 알려준다.¹³⁾ 단군 전승은 고조선사회에서 형성되어 각종 의례를 통해 숭배되어 오다가 고조선의 영역과 주민 대부분을 계승한 고구려에 전해져 그 신앙체계로 흡수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단군과 관련된 전승은 고려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

11) 최근에는 ‘식민사관’ 대신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틀 안에서 근대역사학의 궤적을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윤해동·이성시 엮음,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함께, 2016 ; 윤해동·장신 엮음,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 소명출판, 2018).

12) 서영대, 「단군자료 문헌자료 연구」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75~76쪽.

13) 윤이흠, 「檀君神話와 韓民族의 歷史」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23~25쪽 ; 서영대, 앞의 논문, 1994, 59~60쪽 ;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13~16쪽.

를 겪으면서 전해져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三國遺事』와 『帝王韻紀』가 전하고 있는 전승 역시 그런 변화를 수반한 결과이다.¹⁴⁾ 그러나 일부 표현은 후대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해도 단군의 탄생과 고조선 건국 부분은 단군 전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원형은 고조선 당대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학자들의 단군 인식은 한국학자들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학자의 단군 연구는 출발부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1871년 참모국이 설립되고, 1878년 참모본부로 확대·개편되면서 대륙침략을 위한 현지조사와 광개토태왕비문 연구 등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를 진행하며 시작한다. 즉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 대학에서 근대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되기 전에 정치·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1880년대 말 제국대학 내에 사학과와 국사과가 설립되지만 대학의 경우에도 청일전쟁을 전후해서 그들의 대륙침략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가 고조된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의 대륙진출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연구도 이해해야 한다.¹⁵⁾

일본에서는 1890년을 전후로 역사 연구와 역사교육에서 일본사·동양사·서양사리는 3과 체제로 연구와 교육의 틀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동양사는 사실상 중국사였고 조선사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일본은 메이지시대 이래 조선에 대해 민족적·국가적 멸시관을 강화했기 때문에 조선사를 바로 보고 연구하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사는 동양사 속에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지 못했다.¹⁶⁾

일본관학자들은 한국사의 유구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

14)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1~3쪽.

15) 이만열, 「19세기 말 일본의 한국사 연구」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406~410쪽.

16)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하중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59쪽, 198쪽.

며 단군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단군은 물론 기자조선까지 부인하는 연구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라토리는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동양사의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동양사학의 지리적 틀을 대부분 만들기도 했다. 한편으로 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 동양사학의 융성만이 아니라 중국대륙 침략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¹⁷⁾ 이것은 시라토리가 쇼와 천황(昭和天皇)의 동궁시절 스승으로 천황가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순수한 학자가 아니었던 그의 이력과도 관련이 있다. 시라토리는 러일전쟁 무렵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청일전쟁에서 支那를 쫓아낸 것처럼 러시아 세력을 격파하지 않으면 조선반도를 일본이 차지할 수 없다고 언급¹⁸⁾하는 등 철저히 일본의 대외침략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던 학자였다.

시라토리의 단군 연구는 1894년 1월 발표된 「檀君考」¹⁹⁾에 집약되어 있다. 이때는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미 메이지유신의 연장선상에서 1873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조선침략론’을 주장하다가 하야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조선 침략과 관련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²⁰⁾ 따라서 일본관학자들도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17)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일본의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역사학」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135~136쪽.

18) 白鳥庫吉, 「朝鮮の日本に對する歴史的政策」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 下), 1970, 275~276쪽.

19)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1894(『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1~14쪽 ; 조경철 번역, 「단군고(檀君考)」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9~32쪽).

20) 이원우, 「메이지유신과 조선침략론」 『20개 주제로 본 한일 역사 쟁점』, 동북아

민족의 시조이자 애국계몽적 구국운동의 구심점인 단군을 부정하여 일본 우위적 역사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²¹⁾ 그리고 이러한 일본관학자들의 중심에는 시라토리가 있었다.

시라토리는 같은해 발표된 「조선의 고전설고(朝鮮の古傳說考)」에서도 단군에 대해 연구했지만 논문 서두에서 단군에 대해서는 이미 「檀君考」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요만 기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여기서 나카 미치요(那珂通世)²²⁾가 단군전설은 승도의 날조에서 나온 망설이라고 본 것에 대해 견해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카 미치요는 단군전설이 사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전부 방편해버렸다고 했지만 자신은 이 망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²³⁾ 하지만 시라토리의 단군 연구 역시 단군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후대에 착안되었다고 보는 방식²⁴⁾에 있어서는 다른 일본 학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檀君考」에 나타난 그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군 전승의 발생과 『魏書』 편찬 연대에 대해서이다. 시라토리는 『三國遺事』가 인용한 『魏書』에 단군 기사가 있다고 신뢰하는 전제 아래 논지를 전개하여 단군 전승의 발생 시기를 위서 편찬 연대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마니시 류(今西龍)²⁵⁾의 경우 『魏書』는 北齊의 魏收가 편찬한 것인데 이 책에 이러한 기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魏書』에는 단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본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즉 시라토리는 조선개국 시조로 전해지는 단군의 사적이 중국 역사서에는 『魏

역사재단, 2019, 142~145쪽.

21) 조법중,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50쪽.

22) 那珂通世, 앞의 논문, 1894, 41~42쪽.

23)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說考」 『史學雜誌』 5編 12號, 1894(『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15~17쪽).

24) 조법중, 앞의 논문, 2011, 53쪽.

25) 今西龍, 앞의 책, 1937, 8쪽.

書』에만 보이는데 이 책은 北齊 天保 연간에 魏收가 편찬한 것이므로 단군전설은 이보다 이전에 조선에 유포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단군 전승이 기록된 국내 문헌에 대한 평가이다. 『燃藜室記述別集』 권1726)에는 『三韓古記』의 단군 사적을 신고 있는데 여기서 『古記』는 삼국시대의 기록이지만 삼국 건국은 서한말 이후로 단군시대(요순하시대)와 연대차이가 있다. 여기에 시라토리는 한반도는 기자조선과 위씨조선이 있다가 한의 영토가 되어 조선이라기보다 중국 땅의 일부라고 보았다. 그런데 단군 사적은 『尙書』, 『史記』, 『漢書』에는 없고 『古記』와 『魏書』에만 있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즉 『古記』를 삼국시대의 기록으로 보면서도 중국문헌과 비교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환웅 또는 단군이 강림한 태백산에 대해서이다. 시라토리는 태백산은 지금의 妙香山이라는 전제아래 논지를 전개한다. 『東國輿地勝覽』 권 54에 의하면 묘향산은 불법이 융성했을 즈음에 堂塔伽藍들을 많이 지어 한 때를 풍미했었다고 한다. 『古記』의 檀木이라 보이는 것은 즉 산중에서 자생하는 향목으로 그것을 단목이라 칭한 것은 전적으로 佛國의 牛頭梅檀에 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군전설은 승려의 허구로, 태백산이 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기에 이것을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기고 그 향목을 우두전단에 비정하면서 그 나무 아래 내려온 인연으로 檀君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우두전단은 불보살과 가장 인연이 깊은 名木이라 하였다.

넷째 단군과 부루, 금와와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를 보면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주몽은 金蛙의 양자이고 금와 또

26) 원문의 卷19는 卷17의 오타로 보인다. 『燃藜室記述』 별집 권19에서는 현재는 전하지 않는 『三韓古記』를 통해 단군이 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와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고 상 무정 8년 을미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고, 동부여왕 부루를 낳아 우 임금이 제후를 도산에 모을때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전한다(『燃藜室記述』 別集 卷17, 歷代典故 檀君朝鮮).

한 夫妻의 양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루에 대해서는 『三韓古記』과 『眉叟記言』 권32를 보면 부루는 단군의 아들이라고 기록했다. 따라서 시라토리는 계보가 이와 같다면 단군은 조선국의 시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단군의 아들은 부루, 부루의 아들은 금와, 금와의 아들은 주몽, 주몽의 아들은 유리라고 하는데 누가 실존인물이고 누가 허구의 인물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던지며 결론적으로 금와-부루-단군은 허구의 인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阿蘭弗迦葉原도 불설에 기반한 명칭이라 보았다. 아란불은 阿蘭若의 ‘若’자를 떼고 ‘弗’자를 넣어 舍利佛과 같은 것을 모방해서 인명으로 삼았고 가섭원은 摩訶迦葉, 迦葉佛, 伽倻迦葉, 那提迦葉, 優樓頻羅迦葉 등 보살의 명칭을 原野의 명칭으로 전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시라토리는 삼한의 고기를 통해 단군의 작자는 기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 단군의 諱가 王儉이라는 것으로 보아 衛滿의 事蹟 또한 알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문헌에서 고조선의 도읍명칭은 『史記』 조선열전에서 위만이 도읍한 왕험성²⁷⁾에 대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런데 시라토리는 평양부의 옛 이름인 王險에서 따온 王儉을 단군의 諱로 하여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고 꾸몄다고 보았다. 그는 왕험성은 조선이 한의 영역이 되기 전의 명칭이라 보았다. 이후 평양은 장수왕대에 이르러 도읍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역대의 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인식은 장수왕의 평양 천도 후에 생겼을 것이라고 보았다.

여섯째는 단군전설의 형성 시기 문제이다. 시라토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군전설을 불교설화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전제 아래 논지를

27) 『史記』 卷115, 朝鮮列傳55, “朝鮮王 滿者 … 都王險”

전개한다. 따라서 단군전설은 불교가 전래된 고구려 소수림왕 때보다 앞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고구려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그 시기는 불교가 전래된 372년에서 『魏書』가 편찬된 551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나이가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이 장수왕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의 형성을 불교와 관련시키는데 고구려에서 불법이 흥하여 번성한 것은 장수왕 때이며 따라서 단군전설이 생긴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는 장수왕이 재위 78년간 국가의 小康을 이루었으니 불법의 발흥도 틀림없이 이 시기에 있었으리라 여겼다. 그 근거로 당시 魏나라는 태조와 태종이 불법을 우러러 믿어 온 나라가 불교 분위기에 싸였는데 당시 위나라와 두터운 친목을 맺고 교통왕래가 가장 빈번한 나라는 고구려였다고 보았다. 고국양왕 9년에 불법을 받들어 받으려는 포고를 내리고 광개토태왕 2년 9사를 평양에 세웠지만, 당시는 또 요동에 모용씨가 있어서 중국과 고구려의 교통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불교의 감화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수왕 13년에 이르러 비로소 위나라와 통교한 이래 고구려로부터 위나라에 조공이 끊이지 않았고 이때 위나라는 불법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으므로 고구려도 그 영향을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한다.

그는 단군과 요순을 동시대 인물로 서술할만큼 웅대한 기상으로 드러낸 것도 기자의 조선이나 위만의 조선에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의 조선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오직 중국과 부단한 전쟁을 겪고 국운을 상승시킨 고구려에 있었던 것으로 특히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수왕대라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단군을 부정했던 시라토리는 이후 1896년 한국인과 일본인은 동일한 인종적 기원을 가졌을지라도 오히려 독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주장하였다.²⁸⁾ 한국과 일본을 분리하면서 한국보다 일본을 좀더 우월한 위

치에 놓은 것이다.²⁹⁾ 그러나 단군을 부정했다라도 기자조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한국의 기원은 일본보다 이른 시기라 볼 수 있었다. 이후 시라토리는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논문을 다시 발표한다.

Ⅲ.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기자 연구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단군고」를 발표할 때만 해도 “조선반도에는 箕子の 조선과 위씨의 조선이 있었다”고 보았다.³⁰⁾ 단군조선과는 달리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존재는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0여년 후에는 기자조선도 부정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꾸게 된다.

시라토리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그의 대외 활동과도 관련된다. 첫째는 동양사 연구와 관련되는데 시라토리는 1909년 동양협회에서 열린 강의에서 요·순·우가 역사상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의인화된 고대적 이상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³¹⁾ 시라토리는 『書經』의 기록을 검토하며 요·순·우 각각의 공적은 불균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근거로는 믿을 수 없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하와 상왕조의 존재에 의문을 던지면서 세 성왕을 신화상의 통치자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는 주 이전의 중국 문화에 대해서 상술하지 않았지만, 상왕조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자리를 좀더 원시적인 사회로 대체시켰다.³²⁾ 따라서 주 이전의 중국

28) 白鳥庫吉, 「朝鮮古代官命考」 『東洋時報』 131, 1896(『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97쪽).

29) 스테판 다나카(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134쪽.

30)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1쪽.

31) 白鳥庫吉, 「支那古傳説の研究」 『東洋時報』 131, 1909(『白鳥庫吉全集』 8(アジア史論 上), 岩波書店, 1970, 381~391쪽).

역사를 부정한 시라토리는 자연스럽게 상 말기에 활동한 인물인 기자의 동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이 시기에는 한국사가 만선사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1890년대 청일전쟁 무렵에는 단군·광개토대왕릉비 등 조선 고대사 연구에 집중하였다면 1900년대 후반에 이르면 중국 본토 및 동북 지방이 자국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연구의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이다.³³⁾ 한국의 역사는 처음에는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연구되다가 러일전쟁, 한국 병합 뒤에는 ‘만선사’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한국역사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 특히 시라토리는 러일전쟁 뒤에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생기자 만철 동경지사 속에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을 설치하도록 주도한다. 여기에서 한국사는 한국민족의 주체적 발전의 역사가 되지 않고 만주를 포함한 대륙사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개념이 되고, 한국의 역사는 한국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로 쳐들어온 대륙세력의 파동의 역사로 간주된 것이다.³⁴⁾ 시라토리가 주임으로 취임하여 만선도쿄지사 가설 사무소에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이 설립되어 만선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08년이다. 여기에서 시라토리는 그가 감수한 『滿洲歷史地理』(1913), 『朝鮮歷史地理』(1913)를 간행하였다.³⁵⁾ 특히 그는 『滿洲歷史地理』에서 야나이 와타리(箭内巨)와 공저로 제1편 「한대의 조선(漢代の朝鮮)」을 집필하였다. 여기에서 시라토리는 고조선을 만주사에 포함시키면서도 한사군부터 역사지리를 다루었다. 고조선에 대해서는 한무제 이전의 기록은 복생의 『尙書大傳』에 나오는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났다는

32) 스테판 다나카(박영재·함동주 역), 앞의 책, 2004, 173~182쪽.

33) 박지영,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만주역사조사부」 『일본사상』 35, 2018, 178~179쪽.

34) 旗田巍(이기동 역),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 42~43쪽.

35)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동경제국대학 동양사학과의 만주사 및 조선사, 만선사 연구」 『제국의 학술기획과 만주』, 동북아역사재단, 2021, 118~120쪽.

기록과 『史記』 조선열전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³⁶⁾

따라서 시라토리가 「한대의 조선(漢代の朝鮮)」에서 다루는 범위는 사실상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한사군이다. 이어서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가 집필한 2편 「한대의 만주(漢代の滿洲)」는 동쪽으로 압록강 유역에서 서쪽으로 장성까지 요동·요서군 등 만주의 전한 영토를 다루었다.

시라토리와 비슷한 시기에 기사를 연구한 시이카와 카메고로(椎川龜五郎)는 『日韓上古史, 襄面』(1910)에서 관련 사료를 정리하여 기자조선국이 1차 입국한 지역은 昌黎停車場方面이며 이후 義州 혹은 廣寧으로 옮기고, 연 진개의 침입으로 최후에 옮긴 곳이 낙랑군 패수 동쪽 왕험성(지금의 海城)이라고 보았다.³⁷⁾ 시이카와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면서 그 위치를 요서지역에서 점차 이동했다고 본 것이다.

같은 연도에 시라토리는 箕子에 대한 논문인 「箕子は 조선의 시조가 아니다(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를 1910년 8월 31일 『東京日日新聞』을 통해 발표한다.³⁸⁾ 이 논문은 일본학계가 기자조선을 부정한 본격적인 글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기자조선 부정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기자의 전설에 대해 孔子는 箕子, 微子, 比干을 殷의 三仁이라 하였고 기자에 관해서는 『書經』 등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가 은말주초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문제는 기자가 조선의 시조인지 아닌지라고 보았다. 기자에 대한 자료인 『尙書大傳』과 『史記』에 의하면, 周 武王은 殷 紂王을 멸하고 箕子가 현인임을 중히

36) 白鳥庫吉·箭内互, 「漢代の朝鮮」 『滿洲歴史地理』, 南滿洲鐵道, 1913, 1쪽.

37) 椎川龜五郎, 『日韓上古史, 襄面』, 偕行社, 1910, 39~65쪽.

38) 白鳥庫吉,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東京日日新聞』 1910.8.31, 1910(『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500~503쪽).

여기고 그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기자는 동쪽의 朝鮮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다. 그러자 武王은 멀리서 이를 조선 영주로 봉하였으나 신하로 삼지 않았다고 한 기록을 소개한다. 이것이 기자가 조선의 시조로 전해진 유일한 證跡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라토리는 기자가 조선의 시조라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朝鮮의 이름을 『書經』 『詩經』, 『左傳』에서 볼 수 없으며 秦漢 무렵이 되어 『尙書大傳』과 漢나라 司馬遷의 저서인 『史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箕子 이후 40대 동안은 그 자손 중에 한 명도 어떠한 자료에서도 볼 수 없고, 『魏志』가 인용한 『魏略』에 조선의 왕이 40대 자손이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箕氏가 殷 말기 周 초엽에 東來한 이후 40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을 볼 수 없으며, 수백 년이 지나 겨우 冑·準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라 지적한다.

또한 箕子の 居城을 王險城이라 칭했는데 王險의 이름은 『易經』의 象傳에서 나온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 또 箕子 40대 후손인 冑 역시 『易經』의 “天地否”의 卦에서 나온 말이며 冑의 아들 準의 이름은 동 繫辭傳에 “易與天地準.”에서 나왔다고 보았다. 또 箕子도 『易經』의 地火明夷[夷]³⁹⁾에 “六五箕子之明夷利貞”에서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箕子와 관련된 인명과 지명은 모두 『易經』에서 나왔으며, 『易經』은 孔子 이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기자동래설은 더욱 의심스럽다고 한다.

따라서 시라토리는 기자가 조선의 시조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이러한 전설이 생긴 배경을 검토하였다. 그는 춘추전국시대 동안 諸侯가 독립하여 토지를 개척하고, 그 중에도 특히 燕나라는 滿洲 朝鮮 방면으로 발전하고 더욱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이주하면서 한반도는 마치 支那人의 殖民地와 같은 양상을 띠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39) 원문의 ‘矣’는 ‘夷’의 오타이다.

그 本國으로부터 독립하여 도읍을 王險城에 짓고, 支那思想의 특색으로서 그 조상을 기리기 위해 『易經』 속에서 箕라는 문자를 골라 덕망이 높은殷나라 말기의 賢人 箕子를 스스로 조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오행사상과도 관련되는데 동방은 오행의 木에 해당하며, 木德은 仁으로, 만물을 성육하는 방향이므로 이와 아울러 기자를 추대해 자국의 건설자로 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라토리는 조선인이 箕子를 자신의 始祖로 삼은 것은 가공의 전설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의 국기(태극기)의 표시가 음양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역시 『易經』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IV.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단군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군 전승을 승려가 지어낸 허구로 보는 것이다. 불교의 영향으로 단군 전승이 등장했다고 본 것은 비슷한 시기의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의 연구와 같다. 하지만 나카 미치요는 단군 전승이 승도의 날조로 생겼다고 보면서 “漢史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부 조선인이 만든 것이다. ... 단군의 이름을 王儉이라 하는 것은 평양의 옛 이름인 王險의 ‘險’자를 人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⁴⁰⁾라고 언급할뿐 이외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은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승려가 만든 것이며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단군전설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372년에서 북제 위수의 『魏書』가 편찬

40) 那珂通世, 앞의 논문, 1894.

된 551년 사이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단군을 요순과 동시대 인물로 설정한 것은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수왕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라토리는 이전 학자들이 기자조선을 인정 한 것과는 달리 기자조선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교 전래 이후 창안설

먼저 시라토리는 태백산=묘향산설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三國遺事』에는 환웅이 내려온 지역이자 단군의 출생지로 태백산이 제시된다. 이 태백산에 대해 일연은 묘향산으로 비정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도 영향을 주어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비정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應制詩註』, 『標題音註東國史略』, 『東國史略』(朴祥), 『東史纂要』, 『東史補遺』, 『海東雜錄』, 『東國歷代總目』, 『紀年兒覽』 등은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이 평안도에 있는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보았다. 특히 안정복은 『東史綱目』에서 “묘향산이라는 이름은 향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단군이 太伯山 檀木 아래에 내려왔고 檀은 바로 향나무인 까닭에 후대 사람들이 그 임금을 檀君이라 칭하며 그 산을 묘향이라 부른 것이 아닐까.”⁴¹⁾라는 인식을 보이며 檀을 향나무와 연결시켰다.

묘향산은 고려시대 이래 보현보살의 住處로 인식된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곳의 화엄사찰 보현사는 고려 현종 혹은 정종대 창건되어 번창했다. 고려 중앙 정부는 서북면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보현사를 적극 지원했고 보현사는 중앙 정부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⁴²⁾ 묘향산은 평양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능선의 북쪽은 압록강이, 남쪽은 청천강이 수계

41) 『東史綱目』附卷下 地理考 太伯山考, “然則妙香之稱 以其香木之多而然也 檀君降於太伯山檀木下 檀是香木 故後人遂稱其君曰檀君 名其山曰妙香耶”

42) 김창현, 「고려 서북면의 사원과 불교신앙」 『한국사연구』 149, 2010, 163~177쪽.

를 이루었으며 고구려 국내성과 평양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묘향산에는 단군 유적은 물론 부여와 고구려 동명왕, 송양국, 행인국 등 한국 고대 북방에 존재한 많은 국가의 시조 및 도읍지와 관련된 전승이 전하고 있다.⁴³⁾ 또한 묘향산의 단군 전승과 유적은 대부분 단군의 출생과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기 이전에 이곳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유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⁴⁴⁾ 북한학계에서는 요동중심설을 주장하던 1990년대 초까지 태백산은 요동 지역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본래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난 것은 고조선 영역을 압록강 이남으로 한정시키려 하던 고려 중엽 이후로 보았다. 따라서 단군굴 등의 묘향산에 전하는 전설은 후에 꾸며진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이 전설에는 고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상과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 우리 조상들의 상무적 기풍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⁴⁵⁾

역사적으로 단군 전승에 나오는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해모수는 환웅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오며 그 주변에는 단군 전승의 웅녀로 대표되는 세력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熊心山, 웅심연 등이 있었다.⁴⁶⁾ 이는 태백산 일대가 고조선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해모수는 유화를 웅심산 아래로 유인하여 압록강변에서 사통하였다. 이것은 『三國遺事』에서 태백산으로 비정한 묘향산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태백산은 묘향산보다는 백두산으로 비정할 때 고조선 건국신화와 교섭이 이루어진 고구려 건국신

43) 허홍식, 「名山과 大刹과 神堂의 의존과 갈등- 妙香山과 普賢寺와 檀君窟의 사례-」 『佛敎考古學』 1, 2001, 125쪽, 132쪽.

44) 김성환, 앞의 책, 2002, 109~113쪽; 조원진, 「북한지역의 단군유적과 전승」 『단군학연구』 43, 2020, 235쪽.

45) 장국중·박영해·고광섭·원종규, 『묘향산의 역사와 문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33~136쪽.

46)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卽位年條.

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⁷⁾ 또한 『三國史記』 최치원전⁴⁸⁾과 『三國遺事』 말갈발해조⁴⁹⁾의 북쪽으로 태백산 아래에 의지하여 발해를 세웠다는 기록에서 태백산은 백두산을 가리킨다. 근대 시기에는 단군을 민족 시조 개념으로 연결하고, 단군의 강림지를 백두산으로 비정하며 단군 조선의 강역을 만주 일대로 확장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적 배경을 마련하게 된다.⁵⁰⁾ 시라토리는 단군은 조선의 선조가 아니라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라 주장하며 단군이 강림한 태백산이나 도읍으로 삼은 평양, 신이 된 아사달 등이 모두 고구려 영내에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한다.⁵¹⁾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조선과 고구려 모두 평양지역을 중심지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영역과 고구려의 영역이 일치하는 것은 시대를 달리하는 두 나라의 계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코 단군을 고구려시대의 승려가 꾸며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라토리는 『三國遺事』 고조선조에 인용된 『魏書』를 복제 천보 연간에 위수가 편찬한 『魏書』라고 보면서 고구려 소수림왕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단군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단군전설은 불교가 전래된 372년부터 『魏書』가 편찬된 551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남선이 지적한 것처럼 『魏書』라고 불릴 수 있는 책은 위수의 『魏書』 외에 많은 문헌이 있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삼국시대의 曹魏系 『魏書』와 남북조시대 北魏系 『魏書』 중에 일언이 인용한 『魏書』가 있었

47) 김성환,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63~67쪽.

48) 『三國史記』 卷46, 列傳6, 崔致遠傳,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大白山下 國號爲渤海”

49) 『三國遺事』 卷1, 紀異1, 靺鞨渤海條, “高麗殘孽類聚 北依太伯山下 國號渤海”

50) 이영화, 「일제시기 단군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한국사학사학보』 22, 2010, 141~142쪽.

51)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19쪽.

을 것이다. 구체적인 『魏書』의 실체에 대해서는 王沈의 『魏書』⁵²⁾, 현존하는 북송대 교감본이 아니라 그 이전 위수가 편찬한대로의 古本 『魏書』⁵³⁾,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기준으로 기원전 4~2세기에 편찬된 사서라면 위만조선과 관련된 『魏書』⁵⁴⁾ 혹은 전국시대 魏의 사서⁵⁵⁾라는 견해 등이 있다. 만일 『魏書』가 曹魏系 『魏書』나 그 이전 문헌이라면 불교전래 이후 창안설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三國遺事』 고조선조에는 확실하게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桓因이 帝釋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지만 이것은 일연이 환인에 대해 불교적으로 해석하여 주석을 달았을 뿐이다. 지금도 일연의 해석을 따라 환인을 석제 환인의 줄임말로 보고 환인을 제석과 같은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석제환인의 줄임말은 환인이 아니며 범어 조어법상 석제+환인으로 나눌 수가 없다. 무엇보다 해인사에 보관되어있는 고려대장경에는 ‘석제환인’이란 용례가 천 여 차례 나오지만 ‘환인’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환인이 석제환인의 줄임말이라면 이런 경향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⁵⁶⁾ 따라서 단군 전승은 불교 전래 이후 승려가 꾸며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52) 리상호,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189~194쪽.

53) 박대재,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2001, 21~29쪽.

54) 정중환,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조에 인용된 위서에 대하여」 『대구사학』 12·13, 1977, 15~22쪽.

55) 이도학, 「고조선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검토」 『동국사학』 37, 2002, 22~26쪽.

56) 조경철,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불교-불교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료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237쪽; 「일연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 『불교철학』 9, 2021, 90쪽.

2. 우두전단 유래설

우두전단 유래설은 시라토리가 단군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라토리는 “古記의 檀木이라 보이는 것은 즉 산중에서 자생하는 향목으로 그것을 단목이라 칭한 것은 전적으로 佛國의 牛頭梅檀에 비한 것이다. ... 이 단군전설은 승려의 허구로, 태백산이 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기에 이것을 인도의 마라야산에 비기고 그 향목을 우두전단에 비정하면서 그 나무 아래 내려온 인연으로 단군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⁵⁷⁾”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라토리는 ‘東史’에 牛頭州에 단군이 신하인 팽오의 비가 있다고 기록된 것도 우두전단에 연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檀木이란 명칭도 불국의 牛頭梅檀에서 유래한 것으로 단군은 이에 근거한 가공의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최남선에 의해 반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최남선은 시라토리가 주장한 근거는 ‘檀’이라는 한글자에 있는데 이 ‘檀’이 반드시 檀木의 단일 까닭이 없으며 불교와 관련된 名木도 아니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단군 글자 중에는 ‘檀’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檀’자의 뜻을 통한 해석은 그릇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⁵⁸⁾

또한 이미 3세기에 편찬된 『三國志』 예전에는 “樂浪의 檀弓이 그 지역에서 산출된다.”⁵⁹⁾는 기록이 있다. 『三國志』 예전은 앞부분에 기자·위만·한군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옛 조선 지역인 낙랑과 관련하여 ‘檀’자 명칭이 보이는 것은 주목된다. 이것은 불교 전래와 무관하게 ‘檀’자가 조선 지역과 관련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우두전단

57)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3~4쪽.

58) 최남선(전성근·허용호 역), 앞의 책, 2013, 60~63쪽.

59)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傳30, “樂浪檀弓出其地”

은 박달나무가 아니라 ‘향나무’에 더 가까운 나무라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⁶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우두’, ‘우수’라는 지명이 많았다. 강원도 춘천지역을 우두주라고 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三國史記』百濟本紀에는 온조왕 18년(기원전 1) 11월에 "왕이 낙랑의 牛頭山城을 습격하려고 白谷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⁶¹⁾는 기록이 있다. 牛頭山城의 위치는 춘천을 일컫는 우두주·우수주·우두군 등과 연계시켜 현재의 춘천 지방에 비정하거나⁶²⁾ 백제 북쪽의 낙랑의 위치를 고려하여 황해도 우봉으로 보는 견해⁶³⁾ 등이 있다.⁶⁴⁾ 우두산성의 위치와는 별개로 이러한 사례는 ‘우두’라는 지명이 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대어에서 ‘소’는 ‘물’, ‘모리’는 ‘모인다’라는 뜻을 지니며 한자로 표기할때는 ‘우두(우수)’로 했다는 견해도 있다. ‘우두’라는 지명의 어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지명은 인도의 ‘우두산’, ‘우두전단’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⁶⁵⁾ 결국 태백산이 묘향산이며 묘향산의 불교문화가 단군 전승이 나온 배경이란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

60) 권승안, 「단군명칭의 유래에 대한 일제어용사가들의 견해 비판-《우두전달유래설》을 중심으로-」 『역사과학』 4, 1996, 57쪽.

61)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始祖溫祚王 18年 11月條.

6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310쪽).

63) 이병도 역,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96, 15쪽.

64)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주석판: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625쪽.

65) 권승안, 앞의 논문, 1996, 59~60쪽.

3.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한국학자의 기자조선설 인식 차이

시라토리의 기자 연구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는 실존인물이지만 그가 조선에 온 것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기자의 조선 동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왕·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가져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기자조선설이 성립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중국계 유이민과 『易經』에 주목한다.

시라토리가 기자 동래를 부정한 것은 한국학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라토리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왕·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나왔다고 하여 그 존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학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조선의 역사학은 큰 발전이 있었다. 이미 전근대시대에 청나라의 고증학은 서양 역사학의 실증에 결코 손색이 없는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조선에도 일찍부터 들어왔다. 이익의 『星湖僊說』은 청 고증학 초기의 대표적 저작인 고염무의 『日知錄』과 같은 분석방법과 서술체제를 취하면서 한국사의 많은 문제에 접근했다.⁶⁶⁾ 이처럼 조선후기의 역사학은 이전시기보다 한층 발달했으나 성리학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기자조선 문제는 극복되지 못했다.

근대시기 민족의 개념이 등장하며 사회운동으로 신문이나 잡지에서 단군이 강조되는데 이들 언론 매체에서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들며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임을 강조하였다. 국가나 민족의 위기에 단군의 존재가 주목된 것은 이전에도 확인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시조로서이며 군주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단

66) 권관우, 「한국사연구 백년」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1976, 7-8쪽.

군을 민족의 시조로 내세워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군을 구심점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단군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⁶⁷⁾ 한국의 지식인들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주목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단군에 접근하였다. 최남선이 단군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⁶⁸⁾ 또한 조선시대에는 검증의 기회가 없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도 비로소 검토가 이루어졌다. 언론에서도 1908년 논설에서 “우리 민족은 원래 단군과 기자의 후예라”⁶⁹⁾고하며 단군과 기자를 강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2천만 민족은 동일한 단군의 자손”⁷⁰⁾이라고 하여 기자를 빼고 단군만 강조하기도 하였다.⁷¹⁾

신채호는 1908년 「讀史新論」을 통해 단군의 적통을 계승한 것은 기자가 아니라 부여이며, 기자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훗날 그 후손이 고조선 일부지역의 왕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⁷²⁾ 이후 기자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그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최남선은 기자조선의 허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자조선은 조선의 왕위를 차지한 ‘해’씨가 스스로 부르던 이름이라는 ‘解氏朝鮮’설을 주장했다.⁷³⁾ 정인보는 기자조선을 부정하며 이 시기는 조선 최고의 존칭으로 조선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뜻하는 ‘검’조선설을 주장했다.⁷⁴⁾ 이병도는 준왕의 성을 원래

67) 서영대, 「근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논총』 20, 2011, 47쪽.

68) 최남선(전성곤·허용호 역), 앞의 책, 2013, 242쪽.

69) 「根本的 改良」 『황성신문』 1908.3.12.

70) 「凡今之人은 莫如兄弟」 『황성신문』 1908.3.13.

71)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0, 77~88쪽.

72) 申采浩, 「讀史新論」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15일, 1908 ; 『讀史新論』, 在美韓人少年書會, 1911, 19~28쪽.

73) 崔南善,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東明社, 1929, 62~76쪽.

74) 鄭寅普, 「五千年間 朝鮮의 ‘일’」 『東亞日報』 1935년 1월 29일~31일, 1935 ;

韓氏로 파악하여 ‘한씨조선설’로 이해했으며⁷⁵⁾, 안재홍은 고조선은 ‘크치’를 위호로 사용한다고 보면서 크치조선설로 주장했다.⁷⁶⁾ 특히 정인보가 『三國志』가 인용한 『魏略』의 ‘箕子之後’는 ‘기자의 후손’이 아니라 ‘기자 이후로’라는 뜻이라고 지적한 것과 이병도가 준왕의 성을 韓氏로 파악한 것은 준왕을 기자조선의 왕이 아닌 고조선의 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탁견이었다.

이처럼 근대시기에 한국학자들은 단군조선을 강조하고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자의 동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며 요서지방에 국한된 정권이거나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일개 망명객으로 왔다면 수궁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⁷⁾

고조선사의 체계는 고조선=왕검조선으로 파악하며 이후 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는 『三國遺事』 인식과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조선 체계로 이해하는 『帝王韻紀』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시기 기자조선이 부정되면서 그 시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문헌상 기자의 후예로 기록된 부왕·준왕을 어떻게 이해할지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근대시기 한국학자들은 기자조선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기자가 활동한 시기에 이미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실체를 기자조선이 아니라 해씨조선, 검조선, 한씨조선 등으로 이해한 것이다. 반면 해방후에는 기자조선 시기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위만조선 이전을 단군조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1946, 57~63쪽.

75) 이병도, 「삼한문제의 신고찰」 『진단학보』 3, 1935, 98~99쪽 ;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250~251쪽.

76) 안재홍, 「箕子朝鮮考」 『朝鮮上古史鑑』 上, 民友社, 1947, 7~59쪽.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은 1947년이지만 안재홍은 「箕子朝鮮考」 앞장 ‘말씀’에서 본편은 1937년에 탈고하였고 다소 가필하여 1940년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77) 조원진,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 20, 2009, 404쪽.

4. 부왕·준왕의 이름을 『易經』에서 가져왔다는 주장

시라토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단군을 부정하면서 단목, 아란불, 가섭 원 같은 지명이 불교 경전에서 따왔다고 주장한다.⁷⁸⁾ 이러한 사례는 마찬가지로 시라토리는 『易經』에 비슷한 글자가 보인다고 왕험과 부왕 및 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⁷⁹⁾

〈표 1〉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易經』의 기자 관련 명칭

연번	관련 명칭	편목	내용
1	王險	象辭 習坎卦	王公設險以守其國
2	否	第12 天地否	否之匪人
3	準	繫辭傳	易與天地準
4	箕子	第36 地火明夷	六五 箕子之明夷利貞

그러나 실제로 『易經』 象辭에 ‘王險’이란 용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易經』 象辭 習坎卦에 “王公設險以守其國”이라는 구절이 있다. 일찍이 정약용은 『我邦疆域考』⁸⁰⁾에서 이 구절을 소개하며 평양의 다른 이름이 왕험인 것은 이 뜻이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險’을 ‘儉’으로 고쳐 억지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면서 땅이름을 단군의 이름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 보았다. 이것은 중국문헌에 나오지 않는 국내기록을 불신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라토리의 주장은 정약용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王險’이란 용어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는 일부 글자의 유사성이 전부이다. 또한 否와 準의 경우도 글자의 유사성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될 뿐이다.

78)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8-9쪽, 22~23쪽.

79)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502쪽.

80) 『我邦疆域考』 卷1 朝鮮考.

특히 『易經』 天地否에서 ‘否’자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否’는 막힌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단순히 『易經』에서 왕의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면 이보다는 좋은 의미의 글자를 따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易經』에 나오는 기자 관련 명칭은 『易經』 地火明夷에 언급된 기자를 제외하면 관련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부왕과 준왕의 이름은 선진문헌이나 『史記』, 『漢書』에는 나오지 않는다. 3세기가 되어 『魏略』과 『三國志』 단계에 와서야 확인된다. 『三國志』 예전은 기자부터 준왕까지 40여 대가 지났다고 기록하고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음을 기록했다.⁸¹⁾ 『三國志』 한전은 『魏略』을 인용하여 조선후가 왕을 칭하며 연나라와 대립하고 결국 진개의 침입으로 서방 2천여리를 상실했으며 부왕이 진나라에 정략적으로 예속되고 아들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이 기록되었다.⁸²⁾ 여기에는 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와 연관된 것처럼 서술하고, 연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주왕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등 기자조선설로 인해 윤색된 구절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부왕이 통일제국인 진나라에 정략적으로 예속하였으나 직접 조회

8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傳30,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 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淮)[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魁結夷服 復來王之”

82)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傳30 所引 『魏略』,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朝鮮遂弱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 涇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涇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 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 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오지 않았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외교활동이 나타난다.⁸³⁾ 준왕에 대한 기록은 더 자세하다. 준왕은 위만이 망명해오자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가 나라를 잃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고조선의 왕을 기자의 후손으로 기록한 것은 후대의 윤색이라도 이처럼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과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준왕 남래에 대한 기록이 시대가 지나면서 한층 뚜렷하게 韓과 관련시켜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⁸⁴⁾ 그러나 조선 지역에서 韓 지역으로의 이주 혹은 교류 양상은 고고자료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준왕 남래에 대한 신빙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부왕·준왕을 기자와 무관한 고조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시라토리가 단군을 부정하고 나아가 기자의 동래 및 부왕·준왕의 이름도 『易經』에서 가져왔다고 한 것은 고조선의 실재를 부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시라토리가 단군을 부정한 것은 분명하지만 기자조선에 대한 입장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는 『滿洲歷史地理』에서 『尙書大畧』의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난 기사를 소개하거나⁸⁵⁾ 「우리 나라가 강성해진 역사적 원인에 대해(我が國の強盛となし史的原因に就て)」에서도 주초 기자가 조선을 개척했다고 언급한바 있다.⁸⁶⁾

시라토리는 단군의 역사성과 기자의 동래를 부정하며 기존의 조선의

83)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2018, 221~224쪽.

84) 박대재,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 『선사와 고대』 35, 2011 ; 전진국, 「위만조선 시기 조선 유민의 남하」 『고조선단군학』 45, 2021.

85) 白鳥庫吉·箭内互, 앞의 논문, 1913, 1쪽.

86) 白鳥庫吉, 「我が國の強盛となし史的原因に就て」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 下), 岩波書店, 1970, 169쪽).

기원과 시조로 설명되어오던 역사체계를 부정하였다. 그가 파악한 조선은 춘추전국시대에 연나라 사람의 이주로 비롯되어 이후 본국에서 독립하면서 기자를 그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자조선설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나라 사람의 이주에서 비롯된 것처럼 간략히 언급할뿐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라토리가 「기자는 조선의 시조가 아니다(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1910)에서 기자 동래를 부인하면서 부왕·준왕의 이름을 『易經』에서 따온 것으로 보았고 『滿洲歷史地理』를 위만조선 멸망후 한사군부터 다룬 것은 사실상 그가 고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역사와 독자적인 기원을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라토리의 연구는 이후 일본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는 조선의 개국전설인 단군·기자의 전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단군전설은 고려시대에 발생했으며 기자전설은 고구려시대에 나왔다고 주장했다.⁸⁷⁾ 이마니시 류(今西龍)도 단군의 실존과 기자의 동래를 부정하고 위만조선과 기원전 3세기의 조선만 인정했다.⁸⁸⁾ 또한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와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등과 함께 『朝鮮半島史』의 집필에도 참여했다. 이들에 의해 집필된 『朝鮮半島史』는 제1편을 '상고 삼한'으로 설정하였으나 단군조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로 취급하여 이 시기를 원시시대로 구분하고, 기자조선도 전설로 치부하여 이 시기는 중국인과 조선이 혼재하여 거주하던 부락적 소국의 시기였고 고조선은 위씨조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⁸⁹⁾ 이러한 인식은 『朝鮮史』로도 이어져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에 해

87)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第1卷 第5號, 1918, 6~11쪽.
 88) 今西龍, 「上古—原始時代及び開國傳説」 『朝鮮史の彙』, 近澤書店, 1934, 65~73쪽 ;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89) 김성민, 「해제 :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5, 친일반민족행위진송규명위원회, 2008, 10~13쪽, 25~26쪽.

당하는 시기의 역사 및 고조선의 기원 문제를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고학계의 동향도 1910년 이후 대동강유역에서 낙랑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연구 흐름은 급격하게 중국군현 연구로 전환되었다. 이후 일본의 고조선 연구에 있어 위만조선과 그 이전 고대 한국의 역사는 낙랑군으로 대표되는 한군현 성립의 ‘前史’로 취급될 뿐이었다.⁹⁰⁾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라토리는 단군의 역사성과 기자의 동래를 부정하며 기존의 조선의 기원과 시조로 설명되어오던 역사체계를 부정하였다.

시라토리는 단군전설이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승려가 만든 것이며 태백산은 지금의 묘향산으로 보았다. 그리고 단군전설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372년부터 북제 위수의 『魏書』가 편찬된 551년 사이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단군을 요순과 동시대 인물로 설정할만큼 고구려의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수왕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단군 전승에 나오는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三國遺事』 고조선조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없다. 따라서 단군 전승이 불교 전래 이후 승려가 꾸며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라토리는 고조선의 기원에 대해 기자조선설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나라 사람의 이주에서 비롯된 것처럼 간략히 언급할뿐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기자 동래를 부인하면서 부왕·준왕의 이름을 『易

90) 윤용구, 「일본에서의 ‘고조선사’ 연구」 『고조선사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09, 172~178쪽.

經』에서 따온 것으로 보았고 『滿洲歷史地理』에서는 위만조선 멸망후 한사군부터 다루었다. 따라서 시라토리는 사실상 고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역사 및 독자적인 기원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易經』에서 ‘쑤’는 막힌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만일 『易經』에서 왕의 이름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좋은 의미의 글자로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易經』에서 따왔다는 관련 명칭은 대부분 글자의 유사성을 통한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또한 부왕과 준왕을 기자와 관련된 것처럼 기록한 것은 후대의 윤색이라도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부왕·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국학계에서는 부왕·준왕을 기자와 무관한 고조선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라토리의 연구는 이후 일본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한 시라토리의 연구는 근대 일본학자들의 우리 역사 왜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참고 문헌】

1. 사료

『史記』,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 『應制詩註』, 『我邦疆域考』, 『燃藜室記述』, 『帝王韻紀』

2. 연구서

김성환, 『고려시대의 단군전승과 인식』, 경인문화사, 2002.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0.
申采浩, 『讀史新論』, 在美韓人少年書會, 1911.
윤해동·이성지 엮음,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함께, 2016.
윤해동·장신 엮음,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2)』, 소명출판, 2018.
이병도 역,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96.
이영화, 『최남선의 역사학』, 경인문화사, 2003.
장국종·박영해·고광섭·원종규, 『묘향산의 력사와 문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2012.
鄭寅普, 『朝鮮史研究』 上, 서울신문사, 1946.
최남선, 『六堂 崔南善 全集』 2(韓國史2 檀君·古朝鮮 其他), 玄岩社, 1973.
최남선(전성근·허용호 역),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白鳥庫吉, 『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白鳥庫吉, 『白鳥庫吉 全集』 10(雜纂 他·總索引), 岩波書店, 1971.
林泰輔, 『朝鮮史』 卷1, 吉川半七, 1892(편무진·김현욱·이태훈 역, 『조선사』(번역·해제), 인문사, 2013).
旗田巍(이기동 역),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1983.
椎川龜五郎, 『日韓上古史, 裏面』, 偕行社, 1910.
스테판 다나카(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3. 연구 논문

권승안, 「단군명칭의 유래에 대한 일제어용사가들의 견해 비판-《우두전달유래

- 설》을 중심으로-」 『역사과학』 4, 1996.
- 김문식, 「우리 속의 중화 사상」 『오늘의 동양사상』 11, 2004.
- 김성민, 「해제 : 일제의 조선역사 왜곡정책 조선반도사의 실체와 조선사 편찬」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 김성환,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 김창현, 「고려 서북면의 사원과 불교신앙」 『한국사연구』 149, 2010.
-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이해」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리상호,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3.
- 박대재, 「《三國遺事》古朝鮮條 인용《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2001.
- 박대재,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35, 2011.
- 박지영, 「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와 만주역사조사부」 『일본사상』 35, 2018.
-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東北亞歷史論叢』 26, 2009.
- 서영대, 「단군자료 문헌자료 연구」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서영대, 「근대 한국의 단군 인식과 민족주의」 『동북아역사논총』 20, 2011.
- 안재홍, 「箕子朝鮮考」 『朝鮮上古史鑑』 上, 民友社, 1947.
- 윤용구, 「일본에서의 ‘고조선사’ 연구」 『고조선사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2009.
- 윤이흠, 「檀君神話와 韓民族의 歷史」 『檀君 :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 이도학, 「고조선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재검토」 『동국사학』 37, 2002.
- 이만열, 「19세기 말 일본의 한국사 연구」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 이영화, 「일제시기 단군을 둘러싼 한일간의 공방」 『한국사학사학보』 22, 2010.
- 이원우, 「메이지유신과 조선침략론」 『20개 주제로 본 한일 역사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19.
- 이준성, 「『만주역사지리』의 한사군 연구와 “만선사”의 성격」 『人文科學』 54, 2014.
-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 전진국, 「위만조선 시기 조선 유민의 남하」 『고조선단군학』 45, 2021.
- 정중환, 「삼국유사 기이편 고조선조에 인용된 위서에 대하여」 『대구사학』 12·13,

1977.

- 조경철,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불교-불교관련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 사자료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 조경철, 「일연 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 『불교철학』 9, 2021.
- 조법중,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 조원진,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 20, 2009.
- 조원진, 「고조선과 秦나라의 대외관계 연구」 『사학연구』 129, 2018.
- 조원진, 「북한지역의 단군유적과 전승」 『단군학연구』 43, 2020.
-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976(『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천관우, 「한국사연구 백년」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비평사, 1976.
- 崔南善,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が 아니다」 『怪奇』 2, 東明社, 1929.
- 허홍식, 「名山과 大刹과 神堂의 의존과 갈등-妙香山과 普賢寺와 檀君窟의 사례-」 『佛敎考古學』 1, 2001.
- 李健才, 「評〈箕子朝鮮傳說考〉」 『東北史地考略』 第三集, 吉林文史出版社, 2001.
- 今西龍,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卷 10·11號, 1922.
- 今西龍, 「檀君考」 『靑邱說叢』 卷1, 1929(『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1937).
- 今西龍, 「上古-原始時代及び開國傳說」 『朝鮮史の槩』, 近澤書店, 1934.
- 白鳥庫吉,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1894(『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 조경철 번역, 「단군고(檀君考)」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說考」 『史學雜誌』 5編 12號, 1894(『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 白鳥庫吉, 「朝鮮古代官命考」 『東洋時報』 131, 1896(『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 白鳥庫吉, 「支那古傳說の研究」 『東洋時報』 131, 1909(『白鳥庫吉全集』 8(アジア史論 上), 岩波書店, 1970).
- 白鳥庫吉,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東京日日新聞』 1910.8.31, 1910(『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970).
- 白鳥庫吉, 「我が國の強盛となし史的原因に就て」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 下), 岩波書店, 1970.

白鳥庫吉, 「朝鮮の日本に對する歴史的政策」 『白鳥庫吉全集』 9(アジア史論 下), 1970.

白鳥庫吉·箭内互, 「漢代の朝鮮」 『滿洲歴史地理』, 南滿洲鐵道, 1913.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일본의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역사학」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2009.

나가하라 게이지(永原慶二)·하종문 역,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 「동경제국대학 동양사학과의 만주사 및 조선사, 만주사 연구」 『제국의 학술기획과 만주』, 동북아역사재단, 2021.

Abstract

Critical Review on Shiratori Kurakichi's Study on Origin of Old Joseon

Cho, Won-chin

The core argument of Shiratory Kurakichi's research on Dangun implies that Taebaeksan upon which Hwnung descended is the current Myohyangsan, and that the Dangun myth seemed to be created by a monk, in relation to the Buddhist culture. He suggests that the term Danmok(檀木) was derived from Udujeondan(牛頭旃檀), a Buddhist scripture and the Dangun myth was crea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Jangsu, when the national power of Koguryo was at its zenith,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guryo. In 『Samgukyusa(三國遺事)』, Dangun is, however, recorded '壇君', not '檀君', and the term 'Udu' had been already verified, even before the transmission of Buddhism.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historically identify Taebaeksan appearing in 『Samgukyusa(三國遺事)』 as Myohyangsan.

Shiratory just briefly remarked that the theory of Kija Joseon was derived from the immigration of a person from Yeon(燕), in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theory as the origin of Old Joseon. Shiratory rejected that Kija had become a king of Joseon, which does not seem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pinion of the contemporary academic circle in Korea. However, Shiratory did not only reject the Kija Dongrae, but also believed that the names of King Bu and King Jun came from 『Yeokgyeong(易經)』.

Moreover, he first described the history of Hansagun in 『Manjuyeoksajiri(滿洲歷史地理)』, indicating that in fact, he rejected the history of the Old Joseon era. Then, 『Joseonbandosa(朝鮮半島史)』 and 『Joseonsa(朝鮮史)』, written by Japanese governmental scholars, do not deal with the history and origin of the Old Joseon era, but first described the history of Hansagun.

It is, however,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names of Old Joseon kings were borrowed from 『Yeokgyeong(易經)』, only based on the similarity of several letters. Although Old Joseon kings were recorded as descendants of Kija due to the next generation's embellishment in 『Wiryak』 and 『Samgukji』, it may be difficult to reject the historicity of King Bu and King Jun, both of whose specific substance was recorded.

Shiratory Kurakichi's research rejecting the history of Dangun and Old Joseon gives an important suggestion on how Japanese modern scholars distorted the Korean history.

Key Words : Old Joseon, Dangun, Kija, DangunJoseon, Kijajoseon, Shiratori Kurakichi

논문 투고일 : 2022. 02. 28
게재 확정일 : 2022. 04. 06

심사 완료일 : 2022. 03. 22

